

코스피 추락에도 밸류업 공시 기업 3.2% 올랐다

지난해 102개 기업 참여...자사주 매입·지배구조 개선 등 효과 4분기에만 80개사 분공시...건설·금융·유통 등 참여도 확산

지난해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공시를 한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초 대비 지난해 말 주가가 평균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정 부분 자사주 매입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밸류업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의 주가가 코스피지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경과와 밸류업 공시 현황, 시장동향 및 2025년 주요 계획'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부터 102개사가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했다. 공시 기업 가운데 94개사(코스피 83개사·코스닥 11개사)가 분공시를 실시했으며, 이들 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3.2% 상승했다. 나머지 8개사는 예비공시를 실시하는데 그쳤다.

분공시를 실시한 기업을 기준으로 코스피 분공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평균 4.9% 상승해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수익률(-9.6%)을 15%포인트(p) 가량 상회했다. 코스닥 기업은 주가 수익률은 -9.4%를 기록했지만, 코스닥지수 수익률(-21.7%)보다 하락폭이 12.3%p 적었다.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도 역시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부터 3분기까지는 20여개사가 공시를 실시하는데 그쳐, 정부가 국내 주식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크게 호응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만 80개사가 분공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다.

밸류업 공시를 실시한 기업 중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64개사(63%)였으며,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이 주로 밸류업 공시를 제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초반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금융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며 참여도가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비·기계·건설 등 기업이 22%, 금융주주 및 증권사 19%, 자유소비재 유통 및 소매가 8% 등이다.

공시 기업들은 ▲주주환원 제고(84개사·89%) ▲자본효율성 개선(69개사·73%) ▲매출·영업이익 등 성장성 향상(46개사·49%) ▲시장평가 개선(29개·31개사)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공시 기업 가운데 84%는 이사회 결의·보고절

차를 거쳤고, 52%는 외국인 투자자 소통을 위한 영문 공시를 제출했다.

지난해 주주환원 규모 역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 금액은 지난해 기준 18조 8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3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수준에 달한다.

자사주 소각 역시 지난해 13조 9000억원으로 전년(4조 8000억원)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역시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다.

또 상장기업들의 지난해 현금배당 금액은 45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늘어 밸류업 공시 기업들의 배당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S효성 글로벌 임직원 대상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독자적 아이덴티티 소통망 강화 '컬처 투게더' 문화 체험 제공

HS효성이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한 내부 소통망 강화에 나섰다.

HS효성은 9일 "글로벌 임직원 대상으로 'HS효성 온라인 뉴스레터' 1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뉴스레터 발행은 HS효성이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해가는 과정의 하나로, 회사의 비전과 가치, 주요 소식 등을 전 임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HS효성은 사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활발한 의견 교환 등 글로벌 임직원들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S효성은 이처럼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리며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 '2025 HS효성 캘린더 사진 공모전'을 열고 임직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캘린더를 했는데, 공모전에는 국내외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 우수작을 선정해 2025년 HS효성 캘린더(사진)를 제작했다.

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제안으로 문화 이벤트 '컬처 투게더 시리즈(Culture Together Series)'를 갖고 대중가수 콘서트, 발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했다.

HS효성 출범 후 세 차례 진행된 컬처 투게더 시리즈에는 약 200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HS효성 관계자는 "가치, 또 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내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HS효성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HS효성은 직원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새롭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명품 업계 새해들어 줄줄이 가격 인상

구찌·롤렉스·에르메스 이어 샤넬 가방·주얼리 등 4~10% 가격 올려

새해 들어 에르메스와 롤렉스, 구찌 등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렸다.

9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핸드백의 플래툰 가격을 인상했다. 카프스킨 가죽 기준으로 미니는 824만원에서 853만원 올랐고, 라지 사이즈는 983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1000만원대가 됐다. 인기 제품인 22백과 클래식백 라인 등의 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나 추후 인상 가능성도 있다.

에르메스도 지난 3일 가방, 주얼리(장신구)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10% 이상 올렸다. 대표적으로 바킨백 30사이즈 토고 가죽 소재 제품은 1831만원에서 2011만원으로 오르며 2000만원대가 됐다.

주얼리는 에버헤라클레스 웨딩밴드가 다이아몬드 세팅의 로즈골드 소재 기준으로 255만원에서 295만원으로 15% 넘게 올랐고, 에버컬리

(다이아몬드·플래티늄)는 74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12% 올랐다.

에르메스, 샤넬과 함께 '에루사'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불리는 루이비통도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이달 초 구찌도 가격을 올리면서 마틀라세 수퍼 미니백은 189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뛰었다. 주얼리와 시계 주요 브랜드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반클리프아펠은 지난 3일 하이(고급) 주얼리를 제외하고 전 품목을 4% 인상했다.

인기 제품인 알함브라 목걸이(오닉스)는 414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인상됐다.

롤렉스는 지난 1일 5~17% 인상했다.

인기 모델인 서브마리너 오이스터스틸은 1306만원에서 1373만원으로 올랐다.

태그하이어나도 지난 6일부터 일부 품목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연초에 인기 제품 위주로 가격을 올리고 분위기를 봐서 개별 제품 가격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23일까지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 다양한 브랜드 한정판 판매

광주신세계가 오는 23일까지 본관 1층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 매장을 연다. <사진> 팝업 매장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콜라보한 '말본 골프', '브라운 브레스', '벨스테이스트', '로우로우', '오드 삭스' 등 다양한 브랜드들의 한정판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골프웨어 브랜드 말본 골프는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핑크색 컬러로 눈길을 끄는 스탠드 캐디백을 비롯해 맨투맨, 볼 케이스 커버 등을 판매한다. 이 밖에 드 스트리트 캐주얼 브라운 브레스 티셔츠, 벨스테이스트 후드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또 팝업 매장은 넷플릭스 인기작 '오징어 게임' 작품 속 세트장을 그대로 재현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방문객에게 작품 속 주인공이 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철 패션팀장은 "광주신세계는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이어 나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팬들을 위해 팝업 매장을 열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굿즈를 구매하려는 고객부터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분들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기술원 'AI 건축물 인증 단체 표준' 제정 추진

워크숍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

한국광기술원이 광융합 기술을 응용해 AI 자율 운전 구형, 에너지 다소비 기기 평가, 사용자 만족도 기준, 맞춤형 표준 공간 모델 등이 담긴 AI 건축물 인증 단체 표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광기술원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공모한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사업'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AI 자율운전 시스템 기반 건물 에너지 효율 최적화 표준 인증(이하 AI 건축물 인증) 체계 구축 및 리빙랩 실증 연구를 담당해왔다.

이번 단체 표준 제정은 AI 건축물 인증은 KOLAS(한국품질시험원) 제품인증을 기반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유관기관 간 단체 표준 개발 및 국내외 표준 제정 및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단체 표준 통합 워크숍'을 여수에서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령 한국광기술원 디지털조명연구본부장은 "공동인 한국광기술원이 축적해온 표준화 활동 역량을 발휘해 성공적인 AI 건축물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AI 건축물 인증 관련 단체 표준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9개 기관 참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15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픈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 오픈관 2층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

증기금, 광주광역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국제청, 국립전파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중기부의 자금, 기술개발, 창업·벤처, 수출 등 분야별 정책과 광주시 지원정책, 고용청 고용장려금제도, 국제정 법인세 공제감면 및 세정지원 등을 안내한다.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증 해소를 위해 전문가별 1대 1 맞춤형 상담회도 마련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종합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관련자료는 설명회 이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전남 중기청은 올해 지원사업의 공고 시기 및 예산 조기집행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다양한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종합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기존 15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올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 11조원 공급

금융위 "어려운 서민 여건 감안"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역대 최대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자금으로 완화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년 공급 계획(10조 4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3년(2020~2023년)간 정책서민금융은 연평균 9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됐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자금을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이어 나간다.

지난 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약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 ↑ 양자컴퓨터 ↓

젠스황<사진>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의 행보에 9일 국내 증시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엔비디아의 공급사인 SK하이닉스 주가는 황 CEO의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긍정적 언급에 급등했고 상승화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양자컴퓨터주는 줄줄이 휘청였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전장 대비 5.29% 오른 20만 5000원에 거래를 마치고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증가 기준 20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11월 8일(20만500원) 이후 2개월 만이다.

SK하이닉스의 장비 공급사인 한미반도체도 장중 3%까지 오르기도 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 참가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젠스황 CEO와 만나 최근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반도체 소재 유리기판 관련주도 황 CEO를 만나고 온 최태원 회장의 발언 이후 일제히 급등했다.

최 회장은 SK 부스에서 SK가 선보인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 보이며 "방금 팔고 왔다"고 말했다.

판매 대상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황 CEO를 만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엔비디아에 유리기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SKC는 전장 대비 19.35% 급등한 16만 1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의 선택도 엔비디아 수혜가 기대되는 SK하이닉스와 유리기판 주 등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이날 SK하이닉스를 4780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았는데, 이는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전체 순매수액(7890억원)의 60%에 달한다.

반면, 최근 급등세를 탔던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양자컴퓨터의 시드까지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황 CEO의 발언에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한국첨단소재는 전 거래일보다 10.54% 내린 8060원에 거래됐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1.90 (+0.85)
↑ 코스닥	723.52 (+3.89)
↓ 금리(국고채 3년)	2.500 (-0.005)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63.10 (+8.10)